

제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면

8일 하루 18명 감염... 이달 들어 1일 8명꼴 확진
 확진자 늘면서 각 보건소마다 진단검사도 폭증
 도방역당국 "대유행 현실화... 모임 등 자제해야"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제주사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군부대를 비롯
 해 학교와 유흥업소 등 다중 밀집장
 소를 고리로 한 감염이 확산하고, 진
 단 검사량이 폭증하면서 방역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18명
 (761-778번)이 확진된 데 이어 9일
 에도 7명(779-785명)이 양성 판정
 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일 기록한 1일 확진자 수 18
 명은 올 들어 최대치다. 특히 5월 들
 어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번째 두자릿수 확진을 기록하며
 최근 1주일 평균 하루 감염자 수는
 9.86명까지 치솟았다. 또 이달 들어
 서는 총 7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
 됐다. 방역당국조차 지금의 상황을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다"고 진단
 할 정도다.

신규 확진자 중 상당수는 집단 감
 염 사례였다. 761-763번은 해군 제
 주기지전대 소속 장병으로 지난달
 25-26일 평택에서 함께 훈련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했다.

765-766-767-770-773번은 모두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같은 반 학생인 756번(지난 7일 확
 진)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제주중앙고
 학생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나머지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
 규모 전파로 추정된다. 771번-783번
 은 751번, 772번은 754번, 781번은
 769번, 783번은 751번, 784번은 777
 번과 각각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간 감염도 여전히 759번의
 가족인 780번과 699번의 가족인 782
 번이 9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64-769-777-779번은 코

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자발
 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는 과부
 하가 걸렸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선별진료소에 몰

리면서 하루 최대 1200건의 진단검
 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주보건소의
 경우 지난 7일에는 하루 수용량을
 넘긴 1202건, 주말인 8일에도 900건
 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하려는 시민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접수 마
 감 시간에 걸려 그냥 돌아간 시민들
 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1주일 내내
 쉬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량이 너무 많아 (모두 인원을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도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
 하며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9
 명을 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
 한 것으로 진단된다"며 "늘어나는
 진단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
 간업체를 검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9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9일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희민기자

제주, 코로나 백신접종을 중하위권

5월 6일 기준 6.66%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제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하위권
 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
 산 울주군)이 6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백신 접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11.54%로 가
 높았고 이어 전북(10.15%), 강원

(9.38%), 경북(8.73%), 충북
 (8.38%), 충남(8.32%), 광주
 (7.82%), 경남(7.69%), 대전
 (6.98%), 제주(6.66%), 부산
 (6.65%), 대구(6.32%), 인천
 (6.03%), 경기(5.95%), 서울
 (5.90%), 울산(5.28%), 세종시
 (5.27%) 순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을
 1위인 전라남도도 도민 186만4712
 명의 11.5%인 21만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 최

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만2328명 중 1만8042명으로 5.27
 %에 불과했다.

제주는 전체 도민 67만749명 중 4
 만4669명이 접종해 6.66%를 기록,
 10위에 머물렀다.

실제 전국적인 백신 물량 부족 사
 태로 제주지역 백신 접종 일정은 차
 질을 빚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도내
 화이자 백신 1차 신규 접종·예약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기존 예약된 1차
 접종과 2차 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씻는 비 온다

기상청 "11-12일 도 전역 비"

미세먼지로 인해 제주는 지난 주말
 내내 답답한 대기상태를 보였다.

9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
 면 이날 오전 6시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돼 4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해제됐다. 발령 당시 미
 세먼지 농도는 ㎍당 190㎍이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8시에도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2시
 간 후인 오후 10시에는 '경보'로 격
 상,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경보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4㎍에 달했다.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도 지난 7일 오후 11시부

터 9일 오전 10시까지 발령됐다.

답답했던 대기상태는 9일 밤부터
 내리는 비가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9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
 지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까지는 제주 전지
 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0일 밤부터 조금씩 빗
 방울이 떨어지다가 11일 오후부터는
 제주 전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
 보했다.

한편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6-17
 °C, 낮 최고기온은 22-25°C로 평년
 보다 높겠다. 다음날인 11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18-19°C, 낮 최고기온은 20-
 22°C가 예상된다. 송은범기자

도, 농번기 긴급 인력지원 체계 가동

5-6월 4만6700여명 투입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제주
 지역 농가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
 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
 절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데다
 자원봉사자도 줄어들어 도내 농가들
 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
 번기인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도내
 마을농가엔 약 5만6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인력 부족 농
 가를 대상으로 인력지원(중개)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고용인력 및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자
 원봉사자를 포함해 4만6700명의 인
 력을 투입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우선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
 견근로 지원'에 인력지원 예산을 신
 청, 확보한 국비를 투입해 1개월 이
 상 근로허방 농가에 대해 '내국인 유
 상인력' 635명을 투입한다. 유상인
 력은 1인 1개월 3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
 력지원센터(농협제주본부)와 김녕·
 고산농협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하루
 407명(유상 147명·무상 260명)의
 인력을 공급한다.

이어 일손부족이 예상되는 4000명
 에 대해 매주 자원봉사자 수요를 파
 악해 대학생, 농협, 기관 단체 등에
 일손돕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경제위기전문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업
 종 등에 대한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산하 위원
 회로 도내 경제 분야별 실무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올해 연말
 까지 매월 수시회의를 운영해 관광,
 1차산업, 소상공인, 일자리, 건설, 기
 업지원 등 각 경제 분야별 정책제안
 들을 기반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 및 신속
 한 피해지원 사업을 반영해 나가기
 로 의견을 모았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9일 18시 기준 **확진 785(7)**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문 물류센터